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머리말	Ⅱ. 戰後の 연구
Ⅰ. 戰前の 연구	1. 1970년대까지의 연구
1. 黎明期の 연구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
2. 1910~20년대의 연구	맺음말
3. 1930년대 이후의 연구	

머리말

본 보고는 일본과 한국에서 인식이 다른 史實 중 왜구에 관한 日韓의 대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본측에 있어서 왜구에 대한 시선과 연구성과 및 논쟁에 대하여 근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通觀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 본 보고의 주제이므로, 섭렵하고 검토하는 논저는 근대 이후 일본에서 발표된 일본어 논저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왜구는 이른바 전기왜구(혹은 14·15세기까지의 왜구)와 후기왜구(16세기의 왜구)로 크게 구분되는데, 본 공동연구의 취지 및 연구협력자들과의 분담 관계로, 본 보고에서 취급하는 대상은 주로 전기왜구에 관한 연구로 한정한다. 왜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심(예를 들어 戰前에는 해적사, 戰後에는 대외관계사 혹은 일한관계사, 근년에는 해역아시아사)에 따라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의 연구논저를 왜구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일한관계사나 해역사와의 경계선은 매우 애매하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다음으로 연구사의 시기구분이다. 일본에 있어서 왜구연구는 이미 1세기를 넘는 축적 이 있으며, 중세 후기의 대외관계사 전체로 틀을 넓히면 그 연구사를 취급한 논고만도 열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보고자는 그 중 [秋山謙藏 1939] [中田健夫 1959] [田村洋幸

1992] [關周一 1994a] [同 1994b] [楠木武 2000] [橋本雄 2003] [荒木和憲 2007] [關周一 2008] [橋本・米谷 2008]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戰前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활용이나 영인본의 간행에 의한 사료의 보급을 계기로 연구가 진보해 온 점을 근거로 ‘黎明期’ ‘1910~20년대’ ‘193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戰後에 대해서는 1980년대 즉, 냉전구조 붕괴 전후를 계기로 ‘해역아시아사’라는 새로운 틀이 등장했으므로, 이를 경계로 전후로 구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여 ‘1970년대까지’와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

서술에 있어서는 현재 일한 양국 간에 견해의 차이가 인정되는 논점, 특히 왜구의 주원인 및 왜구의 주체 문제를 인식하면서, 일본측의 연구 상황의 추이를 써 내려가고자 한다.

I. 戰前의 연구

戰前의 왜구연구는 두 가지의 제약 아래 이루어졌다. 첫째는 당시 대일본제국이 구미 열강을 따라가면서 아시아지역에 영토를 확장해 간다는 시대풍조의 영향이었다. 田中健夫는 戰後 14년을 지난 시점에서도 왜구는 “그 활동을 빛나는 일본인 대륙 발전사의 한 페이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보통”(밑줄은 인용자) [田中健夫 1959]이라고 하였다. 戰前의 왜구연구는 “왜구의 활동을 일본인의 해외발전의 구현으로 보는 지향성”이 있었던[關周一 1994b] 것이다. 각 논고를 참조하면 왜구의 활동을 일본의 국위선양의 본보기로 찬양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일본 국내에 왜구의 활동을 기록한 사료가 적다는 연구상의 제약이었다. 전기왜구에 관하여 말하자면, 상세한 정보는 고려·조선왕조측의 사료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나서야 비로소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러한 제약은 있었지만, 좁은 식견으로 한정해서 볼 때 戰前에도 연구자는 사료와 진지하게 마주보고 실증적으로 왜구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 黎明期の 연구

근대 일본의 왜구연구는 해외로 발전하는 일본의 해적을 추급하려는 동기에서 海賊

史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같다. 이러한 톤은 일청전쟁·일러전쟁을 거쳐 南樺太·關東州 그리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당시 일본의 시대풍조에서 온 것이었다.

먼저 菅沼貞風은 저서 《大日本商業史》 중의 <海賊大將軍及‘ばはん船’>이라는 章 속에서 해적들과 무역의 관계를 논했다. 여기서 조선과 무역했던 해적들로서 근세 이래 참조해 왔던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 수록된 인물을 들고 있는 점이 주목되지만, 그 밖의 참고사료 중에는 《南海治亂記》처럼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있다[菅沼貞風 1892]. 다음으로 星野恒은 奈良時代 이후의 해적을 논하고, 그 중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은 그 나라의 역사(東國通鑑)에는 고려 忠定王 2년 2월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글에 ‘…왜구의 흥기는 이것이 시작이다(倭寇之興始此)’라고 되어 있으며…”라고 서술하여, 왜구의 활동이 이 해(1350)에 시작된 것으로 언급했고, 그 이전의 침략행위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었다는 인식도 보이고 있으며, 왜구와 해적을 구별하고 있다[星野恒 1894]. 또한 久米邦武는 奈良時代 이래의 海賊들에 대해서 언급하였고[久米邦武 1911], 渡辺世祐는 毛利家の 사료를 이용한 海賊史 연구를 저술했다[渡辺世祐 1911]. 해적 연구로서 奈良時代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黎明期 연구의 특징이며, 그 중에서 왜구는 명과 조선에서의 한정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다.

한반도측의 사료가 부족한 것이 연구상의 큰 제약이었던 것은 ‘應永의 外寇’에 대하여 林泰輔가 ‘단순히 조선인의 來寇’로 추론하고 있던[林泰輔 1897] 데에 반하여 ‘몽고, 조선인의 연합군’이라고 한 논고도 있어[中野礼四郎 1897~98], 그 실태가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확하다.

2. 1910~20년대의 연구

20세기에 들어 대한제국의 보호국화, 나아가 식민지화로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왜구 연구는 본격화된다. 1909년에 간행된 《高麗史》 3책이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게다가 《朝鮮王朝實錄》이 열람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침략한 왜구 연구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三浦周行에 의해 《老松堂日本行錄》, 《慶尙道地理志》의 해제가 만들어진 의미도 크다.

이때 왜구에 관한 수많은 논고를 발표한 것은 後藤秀穂(肅堂)이다. 後藤는 왜구 연구

에서 중국·한반도 사료의 가치를 제일로 삼고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했으며, 고려 고종 10년(1223)의 ‘倭寇金州’ 이후 13세기 전반에 왜구가 “거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세상에 출현”했던 일을 언급했다[後藤秀穗 1914]. 현재 우리들이 ‘초기왜구’ 등으로 이해하는 왜구에 대한 언급이다. 이어서 《明實錄》을 기초로 嘉靖의 왜구에 관해서 검토하고, 중국인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後藤秀穗 1915a]. 이러한 실증성의 반면, 왜구에는 “植民性이 결여되었다는 일본인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이것을 예찬한 後藤는 전형적인 戰前型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後藤秀穗 1915b][同 1919].

한편 後藤은 왜구의 풍속에 대해서도 고찰했는데[後藤秀穗 1928], 여기서는 16세기의 왜구가 중심이었다. 이 시점에서는 ‘전기왜구’ ‘후기왜구’의 구별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반도의 왜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효시로는 瀨野馬熊과 三浦周行을 들고 싶다. 三浦는 한반도측 사료,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여 應永의 外寇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그때까지의 잘못을 바로잡았다[三浦周行 1916] [同 1926]. 그리고 조선측이 왜구의 근거지로 보고 있던 ‘세 섬(三島)’ 및 기타 지역의 해적과 조선왕조측의 대일통교책의 변화를 추급하였다. 三浦의 이 논고는 <조선의 ‘왜구’>라는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하게 조선왕조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전기왜구’로 인식되는 왜구에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三島를 비롯한 왜구의 근거지, 조선왕조측의 왜구방어책, 대일무역, 수도서, 문인, 개항장으로서의 삼포, 孤草島에서의 조업, 계해약조가 있고, 戰後에서부터 근년에 이르는 중세 후기 일한관계사의 주요 주제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三浦周行 1917]. 瀨野馬熊도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조선왕조 초기의 왜구회유책 및 대책으로서의 수군 정비에 대하여 정리했다[瀨野馬熊 1915]. 두 사람의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기초로 실증적으로 행해졌으며, 전후의 이 연구에 있는 것과 같은 왜구에 대한 깊은 고찰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또한 瀨野가 ‘嘉靖 이후 중국의 왜구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도 유의하고 싶다. 앞에서 後藤의 (嘉靖의 倭寇는 중국인이 중심이었다)는 언급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전기왜구’와 ‘후기왜구’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복수의 연구자 사이에서 고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後藤이 지적했던 13세기의 왜구 중, 中村榮孝는 文永·弘安의 역 사이의 왜구에 대하여[中村榮孝 1926], 《高麗史》를 이용해서 日麗關係를 분석했던 靑山公亮은 주로 13세기 전반의 왜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靑山公亮 1921] [靑山公亮 1927]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한편, 왜구를 지휘하는 주체는 征西將軍府라고 하는 藤田明의 견해[藤田明 1915]는 이후 오랫동안 왜구의 주체에 관한 정설이 되었다.

3. 1930년대 이후의 연구

1930년대에 접어들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朝鮮王朝實錄》 영인 간행과 아울러서 조선사편수회가 간행한 <朝鮮史料叢刊> 안에 《海東諸國紀》, 《保閑齋集》이 들어갔고, 또 《老松堂日本行錄》도 校註를 붙여서 公刊되었다. 이러한 기본사료의 보급을 바탕으로 日朝통교 질서에 관한 연구성과를 차례로 발표했던 中村榮孝, 무역사의 小葉田淳과 森克己 등 戰後까지 활약하는 연구자도 등장한다. 왜구에 관한 논문도 ‘昭和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田中健夫 1959]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왜구 연구자는 秋山謙藏이다. 특히 ‘支那人 왜구’는 嘉靖 이후 왜구의 대부분이 중국인 ‘무뢰배’였다는 것을 서술하고 ‘후기왜구’로 명명했으며, 南北朝에서부터 室町 초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침략했던 ‘전기왜구’와 구별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왜구의 시기구분에서 정설이 되었다[秋山謙藏 1934]. 秋山은 日中關係를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왜구와 서일본 각 지역에서 조선으로의 통교에 대한 논고에서는 그 시야가 왜구에 의한 사람의 약탈 및 피로인의 송환·매매 문제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秋山謙藏 1932]. 피로인 문제는 戰後의 연구자에 의하여 점차 주목을 받아 간다. 秋山の 倭寇觀은 《歷史學研究》에 게재된 단문 ‘倭寇’로 집약되는데, 왜구를 ‘抗日’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 당시 日中關係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秋山謙藏 1935]. 이후에 쓴 秋山の 논저는 점점 더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秋山謙藏 1939].

海賊 연구는 지금까지 海賊=海軍, 또는 海賊=倭寇라는 통속적인 이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長沼賢海의 연구는 이것을一新했다. 長沼는 서일본 여러 지역의 해상세력에 관하여 각각의 근본 사료에 의거해서 그 내부구조를 해명하려고 했다. 그의 논고 중에서 松浦黨[長沼賢海 1933] [同 1935]과 壹岐[長沼賢海 1936]의 논고는 왜구집단 내부로부터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有馬成甫는 당시까지 널리 퍼져 있던 왜구의 주체가 村上水軍이라는 설을 부정했다[有馬成甫 1934].

이들에 대하여 中村榮孝는 《해동제국기》와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논고를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中村榮孝 1928, 1931a, 1931b, 1931c, 1931·1932, 1932a 1932b, 1932c], 왜구를 극복해 가면서 일본열도측의 제세력과의 통교체제를 구축해 가는 조선왕조측의 움직임을 실증적으로 해명, 집대성하였다[中村榮孝 1935]. 中村의 연구는 三浦周行이 <조선의 ‘왜구’>에서 다루었던, 왜구에서부터 日朝 통교질서 확립까지 하나 하나의 논점을 실증적이고도 치밀하게 해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戰後의 중세 후기 일한관계사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경제사로부터의 제기도 있었다. 무역사의 森克己는 對元·高麗 관계에서 활약했던 왜구를 武裝商人團으로 규정했다. 즉 元寇 후 元朝 관리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평화적인 무역이 아닌 무력을 갖춘 強行的 무역이 필수가 되었고, 이것이 왜구로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견해이다[森克己 1934]. 한편 稻葉岩吉는 왜구를 조장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고려 군정의 폐퇴를 들었고, 그 遠因을 田制의 문란에서 찾았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戰後의 田中健夫와 田村洋幸 등에게 이어졌다[稻葉岩吉 1935].

이 시기에는 그밖에도 많은 논저가 있지만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확장이라는 시대상황을 맞아 왜구를 해외에서 勇躍하는 것으로 찬미하는 논조가 현저했다.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겠다.

II. 戰後의 연구

戰前의 연구와 戰後의 연구에는 불연속면과 연속면이 있다. 불연속면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가치관의 전환이다. 왜구를 일본의 대륙진출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田中健夫에 의하면 대외관계사 연구 그 자체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戰後의 연구자는 田中健夫·田村洋幸·長節子 등으로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욕적이며 계속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中村榮孝·森克己·小葉田淳·青山公亮 등 戰前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함으로써 日麗·日朝관계의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 심화하였던 것을 연속면으로 평가하고 싶다. 왜구에 대한 시선이 戰前과는 크게 다르지만, 연구가 실증적으로 계속되는 한도에 있어서 戰前과 戰後의 연구가 두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戰後 국제사회의 냉전구조가 변화하고, 글로벌화·보더레스(borderless)화

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자 대외관계사 연구에서는 海域史라는 새로운 틀이 제시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여하게 된 이래 연구는 장족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왜구연구도 기본적으로는 그 틀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1. 1970년대까지의 연구

戰前부터의 연구자로는 中村榮孝·青山公亮·森克己·石原道博·小葉田淳 등이 있다. 中村榮孝는 왜구의 근거지와 對馬에 관하여 실제 답사에 기초하여 고찰하였고[中村榮孝 1949], 青山公亮는 고려 辛禡王 이후의 왜구와 대일외교를 논하였다[青山公亮 1951]. 戰後부터 ‘후기왜구’ 연구에 종사해 온 石原道博는 왜구에 의한 俘虜(조선인·중국인·일본인)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石原道博 1956].

戰後 왜구를 포함하여 대외관계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田中健夫이다. 田中은 우선 戰前부터의 왜구 연구를 개관한 다음 ‘전기왜구’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田中에 의하면, 조선 측에서 ‘庚寅 以來’ 위협이 되었던 왜구의 목적은 쌀·콩이나 노비의 획득이며, 고려측의 폐퇴가 왜구의 침략을 조장했다는 稻葉岩吉의 견해를 답습했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森克己의 ‘武裝商人團’설과는 다소 다르게 海賊的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즉 田中은 조선측이 근거지로 생각하고 있던 ‘三島’에 대하여 ‘對馬·壹岐·松浦’라고 한 다음, 이윽고 瀬戶內 해적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언급하였고, 구성 요원은 ‘무장상인단’과 ‘海賊群’이라고 했으며, ‘海賊群’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細民群’과 (松浦黨 등) 상습적 해적 성격을 가진 ‘海賊衆’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田中健夫 1950a]. 그리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조선측의 해안 방비책의 충실, 일본에 대한 왜구 금압 요청, 왜구에 대한 회유로 인하여 왜구가 다양하게 변질된 점을 지적했던[田中健夫 1950b] 것이다. 田中은 이를 기초로 ‘전기왜구’에 대하여 논했다[田中健夫 1959].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森克己가 對高麗·元關係史에서 ‘무장상인단’ 설을 주장했고, 고려말 왜구의 활발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田中健夫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인 14·15세기의 왜구에 초점을 두는 등 ‘무장상인단’ 설을 둘러싼 논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이다.

동시기에 무역사의 관점에서 日麗, 日朝關係에 몰두하고 있던 것은 田村洋幸이다. 田村은 왜구의 활동 시기를 구분했고, 그 중에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왜구의 활동을

구별한 다음, 조선 초기의 왜구의 특징을 왕대별로 분석했는데, 이 논고의 서문에서 《世宗實錄》 28년(1446) 10월 壬戌條에 보이는 判中樞院事 李順蒙의 上書(이하, <李順蒙上書>)를 들어 고려말의 왜구에 대해서 “麗末의 왜구는 일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10인 중에서 8·9명까지는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禾尺·才人이라고 부르는 조선 천민층이었음이 명백”하다는 자극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田村은 고려 말의 왜구에서는 변질된 셈인 조선 초기의 왜구는 일본인이라고 하였다. 고려 말의 왜구에 관하여 <李順蒙上書>에 주목한 점은 이후의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로 연결되는 견해였지만[田村洋幸 1961], 이것이 곧바로 논쟁이 되지 않았다. 田村은 다시 조선 초기 倭魁의 계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선 초기 왜구의 실태에 다가섰다[田村洋幸 1962].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는 有光友學도 日朝 간을 왕래하는 무역상인이라는 관점에서 《해동제국기》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하고 있다[有光友學 1970].

게다가 田村洋幸은 전술한 ‘무장상인단’ 설에 관하여 고려시대의 왜구는 ‘무장상인단’이라는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田村洋幸 1967]. 田村의 연구는 對馬, 北九州, 南九州 각각에 초점을 둔 대외관계사 연구로 평가되기도 하였고[田中健夫 1975], 對馬 宗氏에 초점을 둔 長節子の 연구, 博多에 초점을 둔 川添昭二의 연구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사회 또는 호족의 입장에서 본 대외교섭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田村 자신은 대외관계사 연구와 국내 상업경제사의 관련성이 필요하며, 각 지역 호족의 정치적 과정과 무역을 연결하는 노력이 학계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田村洋幸 1992].

왜구의 주체론에 대해서는 稻村賢數가 征西將軍府설에서 진일보하였다. 稻村은 征西府와 왜구의 ‘친근한 태도’를 지적하고, 征西府의 지배 아래 있었던 松浦·菊池 두 세력이 행했던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侵寇로 파악하였다[稻村賢數 1957]. 田村洋幸도 저명한 倭魁인 早田氏와 同姓의 호족이 ‘北松浦郡相浦 今福歲宮의 社司(신사의 神職)’에 있었던 점, 게다가 松浦黨이 전체적인 연맹규약을 작성했던 해가 각각 田村이 말하는 왜구 활동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고, ‘松浦黨이 무엇 때문에 盟約을 교환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사정’을 다루고 있다. 즉 고려 말기부터의 왜구와 松浦黨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田村洋幸 1967].

戰前의 秋山謙藏이 언급한 왜구 피로인 문제에 대해서는 石原道博이 조선인이나 중국인 俘虜의 문제를 논하였다[石原道博 1956]. 有井智德은 한중관계, 즉 명과 조선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왜구에 의한 중국인 피로인의 송환을 검토 고찰하였다[有井智德 1985].

현재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지금까지 중세사 연구는 일국사(National History)적인 발상에서 진행되었다. 田村洋幸의 왜구주체론을 보더라도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라는 擇一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외관계사에 있어서는 세계사의 측면에서 西嶋定生の 책봉체제론(종주국인 중국 황제와 번속국인 주변 제국 수장 사이의 군신질서에 의거한 국제관계)이 제시되었는데, 이것도 ‘隨唐-주변 제국’ 간의 국제질서를 귀납한 것이라든가, 특정 국가 간의 모든 관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세계’와 ‘지역’을 국가의 집합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村井章介 1988]. 그러나 長節子和 川添昭二 등에 의하여 지역으로부터의 대외관계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혹은 지역과 지역의 관계를 분석하는, 즉 대외관계를 다원적으로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의 빠른 전개에 대비하는 준비가 이미 정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

1970년대 후반 이후, 網野善彦의 ‘日本論’으로 대표되는 사회사에 대한 주목을 배경으로 한 내셔널 히스토리를 비판하는 조류가 일어났다. 왜구 및 대외관계사 연구는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 조류는 1980년 塚本學의 제언(塚本學 1980)으로 시작되었다. 塚本는 일본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식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개념에 대해서도 중국민족·조선민족·일본민족 등으로부터 성립된다는 견해를 비판했으며, “예를 들어 15~16세기의 五島 열도와 제주도, 舟山 열도를 포괄하는 왜구 세계를 상정하거나”, “일본해 연안 여러 지역”을 상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받아들인 網野는 당시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 사회 및 그 교류에 주목한 연구를 들고, 일본을 지역사라는 시각으로부터 다원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網野善彦 1982].

많은 연구자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1977년에 발족한 田中健夫씨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관계사연구회’, 그 다음해에 시작된 ‘李朝實錄을 읽는 모임’에서는 村井章介·關周一 등 많은 연구자가 대두하였고, 關西에서는 그 이름도 ‘해역아시아사연구회’인 모임이 출범하였다. ‘해역아시아사’라는 명칭은 이제는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왜구 연구의 족적을 검토해 보겠다.

網野와 塚本の 제언 이전부터 田中健夫는 ‘국경에 구속되지 않는’ 통교관계의 연구를 주장하였다. 田中은 1982년에 간행한 《倭寇－海の歴史－》에서 ‘전기왜구’와 ‘후기왜구’의 이질성에 주목하고, 전자를 ‘14·15세기의 왜구’, 후자를 ‘16세기의 왜구’라고 했으며, 그 서문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국경에 구속되지 않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표방했다(田中健夫 1982). 또 이 책에서 田中은 왜구의 구성에 대하여 이미 田村가 지적한 <李順蒙上書>를 들어, 구성원에는 고려의 천민이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국경에 구속되지 않는” 지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은 村井章介였다. 村井은 중세 일본의 국가 자체를 다원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일본의 주변 지역을 각각 어느 정도 자립한 ‘環日本海 지역’, ‘環동지나해 지역’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가설’을 제시했다(村井章介 1985). 村井의 제기는 内海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해역아시아’라는 시각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후 다수의 연구성과를 낳았으며, 대외관계시는 그러한 모든 지역과 국가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關周一 1994a] 및 [橋本雄 2003]에 연구사 정리). 일본열도 및 주변 제지역과 조선왕조의 교류사 연구에서는 엄청난 僞使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어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荒木和憲 2007][橋本・米谷 2008][關周一 2008].

왜구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2개의 논고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田中健夫는 ‘14·15 세기의 왜구’에 대해서, 1350년 이후 습격 회수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 시기의 왜구를 일본인만의 해적집단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다음, 재차 <李順蒙上書>를 예로 들어 “왜구의 주체는 왜인 복장을 한 고려인이며 일본인은 10~20%에 지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 더 나아가 田中은 《高麗史節要》의 禾尺・才人에 관한 기술을 들어, 고려측의 저변 민중 및 일개 농민을 왜구의 주력으로 상정하고, 이것을 보강하는 논거로서 고려의 토지제도와 신분질서의 혼란을 거론하고 있다(田中健夫 1987). 같은 해에 高橋公明는 水賊(‘조선인 해적’),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의 해민에 대한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에 착목하여 그들이 왜인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주도 해민의 존재를 전제로 ‘전라도－같은－北九州’라는 교류 루트의 존재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왜구와의 관련에 대해서도 제주도에 대량의 말이 있었다는 것에 착목하여 이 제주도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高橋公明 1987). 田村洋幸도 종래의 견해를 진척시켜, 고려시대 왜구 발생의 원인으로 일본측의 사회경제적 혼란 외에 고려측의 토지제도·신분질서의

혼란이나 군제의 이완을 들어 왜구 창궐의 배경은 고려 민중의 왜구 지지에 있다고 하였다[田村洋幸 1990].

村井章介는 海域史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村井章介 1988], 자신의 가설로 제시했던 ‘환동지나해지역’의 일례로서 경상도의 삼포에서부터 對馬·壹岐를 거쳐 博多에 이르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왜인을 ‘마지널맨(marginal man, 경계인)’으로 부르고, 그들의 생활 장소인 ‘왜’와 ‘일본’을 구별하였다[村井章介 1993]. 나아가 村井은 (옛날에는 後藤秀穂·青山公亮이 언급하였고, 中村榮孝가 왜구로서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田村洋幸도 ‘왜구의 초기형태’로 평가했다) 1223년부터 1227년의 왜구에 관하여 14세기 이후의 왜구와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初發期の 왜구’로 명명하고, ‘承久의 亂’으로 인한 일본 국내의 혼란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村井章介 1988]. 佐伯弘次도 해적과 왜구에 대하여 정리하는 중에 12세기 중기부터 13세기 전반으로 시기를 넓혀서 ‘초기왜구’로 부르고, 나아가 해적과 왜구의 연구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일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창하였다[佐伯弘次 1992].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에 대하여 浜中昇은 한국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田中가 사료적 근거로 삼은 <李順蒙上書>를 검토하고 고려인이 왜구로 위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倭人不過一二’는 고려인의 위장이 많았던 것을 말하기 위한 과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고려의 토지제도 혼란은 《高麗史》編者の 입장에서 견해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고(따라서 반드시 혼란스러웠다고 볼 수도 없으며), 농민이 희생이 되어 왜구에 참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高橋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해민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를 조선 국내에서는 찾아내기 어렵고, 《高麗史》에 등장하는 대규모 왜구집단의 선박·인원·마필 모두가 과장되어 있으며, ‘왜구는 일본인만의 해적집단’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村井가 말한 ‘倭’와 ‘일본’에 대해서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실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浜中昇 1996]. 나아가 浜中는 ‘禾尺·才人’에 관하여 조선측 사료로 되돌아가 고찰하고 있다[浜中昇 1997]. 村井章介도 <李順蒙上書>의 해석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쳤음을 지적하고 田中健夫의 해석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村井章介 1997].

한편 李頴은 전기왜구를 ‘13세기의 왜구’, ‘왜구의 공백기’, ‘庚寅年 이후의 왜구’라는 3期로 시기를 구분하고, ‘初發期の 왜구’인 ‘13세기의 왜구’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왜구의 공백기’에 있어서 異國警固·海賊警固를 수행하고 있던 少貳氏와 그의 被官 宗氏의 역할에 주목하여, 庚寅年(1350)의 왜구는 북부 九州에

서 足利直冬의 공세에 압도된 少貳賴尙의 고려 침공이 발단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의 연속된 대규모 왜구는 서일본의 惡黨이 南朝 쪽의 수군으로 동원되었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했다. 특히 왜구와 악당의 전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일본측 사료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간 검토가 눈에 띈다. 또한 李領은 田中の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을 비판하고 왜구는 일본인만의 집단이라고 하였다[李領 1999].

이영의 설은 田中 등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戰前부터의 왜구주체론의 계보상에도 위치하며(이영처럼 少貳氏에게 주목했던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齋藤滿 1990], 나아가 일본측 사료를 깊이 분석하면서 왜구의 구성문제를 밝혀내려는 한국측의 연구성과의 선구이기도 하였다(본 위원회의 김보한 보고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적 검토> 참조).

李領의 저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浜中昇은 少貳氏나 南朝 쪽이 戰費 조달을 위해 주도했다는 견해나 惡黨과의 관련에 대하여 평가·지지했지만[浜中昇 2000], 關周一은 여기에 의문을 나타냈고[關周一 2000], 橋本雄는 長節子の 對馬宗氏에 관한 연구의 축적[長節子 1987]을 전제로 생각하면, 庚寅年(1350) 少貳氏의 고려 침공에 대해서 곧바로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兵糧을 요구한 침략행위라는 점은 찬성)[橋本雄 2000]. 왜구의 주체에 대해서 橋本은 동시기의 중국 정세나 해역 세계의 상황도 시야에 넣어서 검토할 것을 제기하였고[橋本雄 2002], 關은 李領의 學說史 정리 및 宗氏와 고려의 관계에 대한 이해, 나아가 李領이 왜구 피로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 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關周一 2000]. 浜中昇은 일본인만의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이면서도 논증 과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浜中昇 2000]. 또 森茂曉는 막부의 휘하에 있던 少貳氏의 세력이라면, 막부는 少貳氏에게 명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을 터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 왜구활동에 종사했던 세력은 ‘少貳氏의 지령에 반드시 굴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의 지배적인 세력에 가담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며,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의 해상무장세력’이라고 하였다[森茂曉 2005]. 海津一朗도 다시 해역세계로의 주목을 주장하고 惡黨과 海賊의 동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즉 惡黨도 海賊도 왜구도 국가의 통제구역이 近畿~중부지방까지 밖에 미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존재했던 자율적 집단이며, 그들에게 국가의 통제가 가해졌을 때 표면에 떠오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다[海津一朗 2004].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구는 해역에서의 자율적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한편 李領의 연구는 종래 왜구의 침공횟수가 문제되었는데, 왜구의 피해와 시기를 지도상의 점으로 표시하여 왜구집단의 일련의 행동으로 추측한 점을 평가받았다[橋本·米谷

2008].

이러한 일련의 논쟁의 한편에서 국경으로 파악되지 않는 지역·해역에 초점을 두고, ‘日朝多元關係’[關周一 2008]의 확립에 수반하는 통교자로 변질되고 있던 왜구와, 왜구의 활동에 따른 교류를 분석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우선 關周一은 왜구가 창궐하는 14세기 후반부터 후기왜구의 시기에 해당하는 16세기 후반까지의 ‘한반도(특히 남해안의 삼포나 도서)~對馬~壹岐~五島列島~九州 북부(주로 博多)~山陰 지역 등의 범위’를 대상으로 사람·물건·정보의 이동 또는 전파에 주목하는 접근법으로 지역·해역의 구체상을 그려 나갔다. 왜구 그 자체보다 왜구 피로인의 경우와 본국으로의 송환체제를 검토했던 것이다[關周一 2002]. 한편 韓文鐘이 조선왕조로부터의 수직왜인을 조사하자[韓文鐘 1995], 松尾弘毅는 壹岐의 藤九郎과 壹岐의 松浦党에 주목하여, 그들의 조선에 대한 통교를 조사한[松尾弘毅 1999][同 2002] 것을 계기로 五島열도나 肥前 松浦의 조선통교자를 분석하였다[松尾弘毅 2004][同 2006]. 松尾의 관심의 초점은 왜구에서 조선 통교자로 변질된 이른바 향화왜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松尾弘毅 2007]. 아울러서 荒木和憲은 왜구의 주체 중 하나였던 對馬를 宗氏의 領國으로 파악하고, 그 지배체제와 日朝通交의 변천을 분석하였다[荒木和憲 2007].

이들의 교류사적인 연구와는 한 획을 긋고, 독자적으로 (후기왜구까지도 포함하여) 왜구연구를 행했던 사람이 太田弘毅이다. 田村洋幸과 田中健夫, 浜中昇 등이 위장한 고려인에 관하여 왜구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太田은 ‘가짜 조선인이 되어 조선인으로 위장했던’ 왜구에 조명을 비추고 있다[太田弘毅 2002].

한편 秦野裕介는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 등장하는 ‘왜’와 ‘일본’의 용법에 주목하여 ‘일본’, ‘일본인’이란 室町幕府나 征西將軍府를 가리키는 말이며, ‘왜’는 당시, 즉 明代의 조공시스템에서 탈락한 자에게 붙인 라벨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여기서의 ‘일본’과 현재 존재하는 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은 크게 다르다. 秦野는 도대체 ‘일본’, ‘일본인’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秦野裕介 2002].

맺음말

100여 년에 이르는 왜구에 관한 연구사의 윤곽을 走馬看山 식으로 회고하였다. 현재 日韓 양국간의 의논의 초점은 왜구의 주체 및 구성원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변치

않은 정리를 기초로 약간의 감상을 서술하며 매듭짓고자 한다.

1970년대까지는 왜구의 구성원이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를 현재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가령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라 해도 그것은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일본열도 출신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일본사에 있어서 중세 후기의 ‘일본’국가와의 관련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내란이 많았고, 국가의 형태가 전후의 시기에 비하여 애매했던 일본열도 중세사의 문제이니만큼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일본열도의 중세사회 혹은 일본열도의 주변지역, 또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해역에 있어서 왜구집단의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 시각이 요구될 것이다.

<李順蒙上書>와 ‘禾尺·才人’을 둘러싼 문제도 이처럼 사료가 적고, 게다가 <李順蒙上書>는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50년이 지난 후의 사료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을 주장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 ‘전기왜구’의 주된 원인은 일본 열도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대규모 왜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세력의 관여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李順蒙上書>에도 명확하듯이 해역의 생활자 혹은 한반도측의 인물이 위장왜구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더군다나 왜구가 조류가 복잡한 한반도 서해안을 북상하거나, 한반도의 내륙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지 사정에 밝은 한반도측의 누군가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太田弘毅가 지적했듯이 ‘조선인을 가장한’ 왜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村井章介가 제시한 것처럼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역 세계의 존재가 전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왜구의 실태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 해명은 오늘날의 국경을 일단 벗어나서 지역·해역과 그 당시 국가와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는 일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중국사의 성과도 받아들이고, 또한 日中韓 연구자들의 합동 답사·합동 사료 조사와 같은 기회를 늘리는 것이 연구의 진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付記] 끝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히 戰前의 연구 논저 수집에 있어 九州大學 韓國學센터에 근무하는(본 보고 작성 당시) 原智弘씨에게 많은 협력을 받았음을 밝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문헌】

① 倭寇 및 中世 後期の 對外關係史・日韓關係史의 研究史

- 秋山謙藏, 1939 <日支交渉史研究の回顧と展望> 同 《日支交渉史研究》(岩波書店 수록)
 田中健夫, 1959 <日本中世海賊史研究の動向> 《史學雜誌》 第68編 第2号 (후에 同,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에 再録)
 田村洋幸, 1992/6 <中世日朝貿易の基本的性格と研究史の動向> 《經濟經營論叢》
 關 周一, 1994a <中世<對外關係史>研究の動向と課題> 《史境》 28号
 關 周一, 1994b <倭寇> (川北稔 編, 《歷史學事典》 第1卷 交換と消費 (弘文堂에 수록)
 楠木 武, 2000 <中世日韓關係史研究をめぐって> (歷史教育研究會 編, 《日本と韓國の歷史教科書を讀む視点》(梨の木舎에 수록)
 橋本 雄, 2003 <中世日本對外關係史の論点> 《歷史評論》 No.642
 荒木和憲, 2007 <中世日朝交流史研究の推移> (同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山川出版社)에 수록)
 關 周一, 2008 <日朝多元關係の展開>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岩波書店)에 수록)
 橋本 雄・米谷 均, 2008 <倭寇論のゆくえ> (同 上書에 수록)

② 研究論著

- 菅沼貞風, 1892 《大日本商業史》
 星野 恒, 1894 <海賊ノ顛末と海軍ノ沿革> 《史學雜誌》 第5編 4・6・8・9号
 林 泰輔, 1897 <応永二十六年の外寇に就きて> 《史學雜誌》 第8編 第3号
 中野礼四郎, 1897-98 <足利時代に於ける明への倭寇> 《史學雜誌》 第8編 第10号・第9編 第1・2・3号
 久米邦武, 1911 <海賊と關船> (日本歷史地理學會 編, 《日本海上史論》(三省堂에 수록)
 渡辺世祐, 1911 <日明交通と海賊> (同上書籍수록)
 後藤秀穂, 1914 <予が觀たる倭寇> 《歷史地理》 第23卷 第5・6号 및 第24卷 1・2号
 後藤秀穂, 1915a <最も深く内地に侵入したる倭寇の一例> 《歷史地理》 第25卷 第1号
 後藤肅堂(秀穂), 1915b <倭寇の説明するわが國民性の一角> 《史學雜誌》 第26編 第1号
 瀬野馬熊, 1915 <倭寇と朝鮮の水軍> 《史學雜誌》 第26編 第1号
 藤田 明, 1915 《征西將軍宮》(東京宝文館) (후에 文獻出版에서 再版, 1975)
 三浦周行, 1916 <応永の外寇> 《史林》 第1卷 第1号
 三浦周行, 1917 <朝鮮の<倭寇>> 《史林》 第2卷 第2号(上記 두 책은 후에 同, 1922 《日本史の研究》 第1輯 (岩波書店)에 再録)
 後藤肅堂(秀穂), 1919 <海國民としての倭寇> 《歷史と地理》 第4卷 第1号
 青山公亮, 1921 <日元間の高麗> 《史學雜誌》 第32編 第8・9号
 三浦周行, 1926 <応永の外寇の真相> 《内藤博士還曆祝賀支那學論叢》(弘文堂) (후에 同, 1930 《日本史の研究》 第2輯 (岩波書店)에 再録)
 中村榮孝, 1926 <文永・弘安兩役間における日・麗・元の關係> 《史學雜誌》 第37編 第6-8号 (후에 同, 1965 《日韓關係史の研究(上)》(吉川弘文館)에 再録)

- 青山公亮, 1927 <高麗高宗朝及び元宗朝の倭寇> 《史學雜誌》 第38編 第4号
- 後藤肅堂(秀穂), 1928 <倭寇風俗考> 《中央史壇》 第14卷 2・3・5号
- 中村榮孝, 1928 <海東諸國紀の撰修と印刷> 《史學雜誌》 第39編 第8・9号
- 中村榮孝, 1931a <受職倭人の告身に就いて> 《歴史と地理》 第28卷 第1・2号
- 中村榮孝, 1931b <倭人上京道路に就いて> 《歴史地理》 第56卷 第2号
- 中村榮孝, 1931c <太平記に見えた高麗人來朝の記事に就いて> 《青丘學叢》 第4号
- 中村榮孝, 1931・1932 <室町時代の日鮮交通と書契および文引> 《史學雜誌》 第42編 10・第43編 11号
- 中村榮孝, 1932a <鮮初の對日關係と浦所の制限> 《朝鮮》 201
- 中村榮孝, 1932b <鮮初受凶書倭人考> 《青丘學叢》 第7・8号
- 中村榮孝, 1932c <応永の外寇を朝鮮から觀る> 《朝鮮》 210・211(上記 8책은 同, 前掲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再録)
- 秋山謙藏, 1932 <<倭寇>による朝鮮・支那人奴隸の掠奪とその送還及び賣買> 《社會經濟史學》 第2卷 第8号
- 長沼賢海, 1933 <元寇と松浦党> 《史淵》 第7輯
- 秋山謙藏, 1934 <支那人の倭寇> 《歴史地理》 第63卷 第5号
- 有馬成甫, 1934 <村上水軍と倭寇> 《國史學》 第21号
- 森 克己, 1934 <日宋交通に於ける我が能動的貿易の展開> 《史學雜誌》 第45編 第2・3・4号
- 秋山謙藏, 1935 <倭寇> 《歷史學研究》 第3卷 第3号
- 中村榮孝, 1935 <室町時代の日鮮關係> 《岩波講座日本歴史》 3(후에 同, 前掲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再録)
- 長沼賢海, 1935 <松浦党の發展及び其の党的生活> 《史淵》 第10・11輯
- 稻葉岩吉, 1935 <日麗關係> 《岩波講座日本歴史》 2
- 長沼賢海, 1936 <海上交通史上の壹岐> 《史淵》 第12輯
- 秋山謙藏, 1939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 中村榮孝, 1949 <ツシマの歴史的位置> 《日本歴史》 第19号(후에 同, 前掲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再録)
- 田中健夫, 1950a <十四・五世紀における倭寇の活動と構成> 《日本歴史》 第26号
- 田中健夫, 1950b <倭寇の変質と初期日鮮貿易> 《國史學》 第53号(上記 두 책은 同, 前掲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에 再録)
- 青山公亮, 1951 <王氏高麗朝の末葉に於ける彼我の外交に就いて> 《朝鮮學報》 第2輯
- 青山公亮, 1955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文學部文學研究所)
- 石原道博, 1956 <倭人と朝鮮人俘虜の送還問題> 《朝鮮學報》 第9・10輯
- 稻村賢敷, 1957 《琉球諸島における倭寇史跡の研究》 (吉川弘文館)
-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田中健夫, 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 田村洋幸, 1961 <鮮初倭寇の性格とその変遷> 《鈴峰女子短大研究集報》 第8集
- 田村洋幸, 1962 <鮮初倭寇の系譜について> 《朝鮮學報》 (上記 두 책은 同,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에 再録)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 有光友學, 1970 <中世後期における貿易商人の動向> 《靜岡大學人文論集》 第21号

-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吉川弘文館)
- 塚本 學, 1980 <日本史は特異なのか－全体會の齊藤報告に關連して> 《歴史學研究月報》 第248号
- 網野善彦, 1982 <地域史研究の一視點－東國と西國－> (佐々木・石井 編, 《新編日本史研究入門》(東京大學出版會)에 수록)
- 田中健夫, 1982 《倭寇－海の歴史－》(教育社歴史新書)
- 有井智徳, 1985 <14・5世紀の倭寇をめぐる中韓關係> (同 《高麗李朝史の研究》(國書刊行會)에 수록)
- 村井章介, 1985 <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國家> 《思想》 732号 (후에 同,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에 再録)
-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交流圈> (朝尾・網野ほか 編, 《日本の社會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岩波書店)에 수록)
-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3
- 長 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吉川弘文館)
-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 齊藤 満, 1990 <征西府とその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史泉》 71
- 田村洋幸, 1990 <高麗倭寇および初期日朝貿易に關する史的方法論序説> 《經濟經營論叢》
- 佐伯弘次, 1992 <海賊論> (荒野・石井・村井 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東京大學出版會)에 수록)
-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伝》(岩波新書)
- 韓文鐘, 1995 <朝鮮前期の受職倭人> 《年報朝鮮學》 5
- 浜中 昇, 1996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 《歴史學研究》 №685
- 浜中 昇, 1997 <高麗末期・朝鮮初期の禾尺・才人> 《朝鮮文化研究》 第4号
- 村井章介, 1997 <倭寇の多民族性をめぐって－國家と地域の視點から> (大隅・村井 編,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と國際關係》(山川出版社)에 수록)
- 李 領,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 松尾弘毅, 1999 <室町期における壹岐藤九郎の朝鮮通交> 《九州史學》 第124号
- 浜中 昇, 2000 <書評：李領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評論》 №603
- 關 周一, 2000 <書評：李領 《倭寇と日麗關係史》> 《日本歴史》 第630号
- 橋本 雄, 2002 <書評：李領 《倭寇と日麗關係史》> 《歴史學研究》 №758
- 關 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吉川弘文館)
- 松尾弘毅, 2002 <中世後期における壹岐松浦党の朝鮮通交> 《九州史學》 第134号
- 太田弘毅, 2002 <朝鮮半島における詐術の形態－倭寇が裝った現地人の姿－> (太田弘毅, 《倭寇－商業・軍事史的研究》(春風社)에 수록)
- 秦野裕介, 2002 <<倭寇>と海洋史觀－<倭寇>は<日本人>だったのか－> 《立命館大學人文科學研究所紀要》 81号
- 松尾弘毅, 2003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後期受職人の性格> 《日本歴史》 663号
- 松尾弘毅, 2004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五島諸氏と通交体制> (九州大學COEプログラム<人文科學>《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에 수록)
- 海津一朗, 2004 <<元寇>, 倭寇, 日本國王>(《日本史講座4 中世社會の構造》(東京大學出版會)에 수록)
- 森 茂曉, 2005 《南朝全史－大覺寺統から後南朝へ》(講談社選書メチエ)
- 松尾弘毅, 2006 <中世後期における田平・平戸松浦氏の朝鮮通交と僞使問題> 《古文書研究》 61号

松尾弘毅, 2007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史淵》 第144号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